

[ 경기도 부천시 ]

#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다

부천시 원도심에서는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에 시달려 왔다. 부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 경제 플랫폼을 구축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했다. 특히 주민, 민간,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작성 : 경기도 부천시



## 01 사회적 경제 모델과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주차난 해소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지역은 삼정동 상살미 마을이다. 이곳은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었다. 부천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유 플랫폼과 사회적 경제 모델을 구축하였다. 다양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공유서비스를 융합(Mash-up)·연계하고, 마을기업이 공유 서비스를 운영·관리함으로써 주민,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림 1>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서비스 아이디어

마을 주변 공영·민영 주차장 및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과 개인주차면을 공유한 결과 공유 주차 공간 280면을 확보하여 주차장 수급률은 72%P 증가(37→109%)하고, 불법주차는 41% 감소(266→156대/일)하였다.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대행 또는 공유 모빌리티(공유차, 공유킵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마을기업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 효과까지 거뒀다.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시티패스)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하였다. 더욱이 마을기업이 공유 서비스를 관리함으로써 마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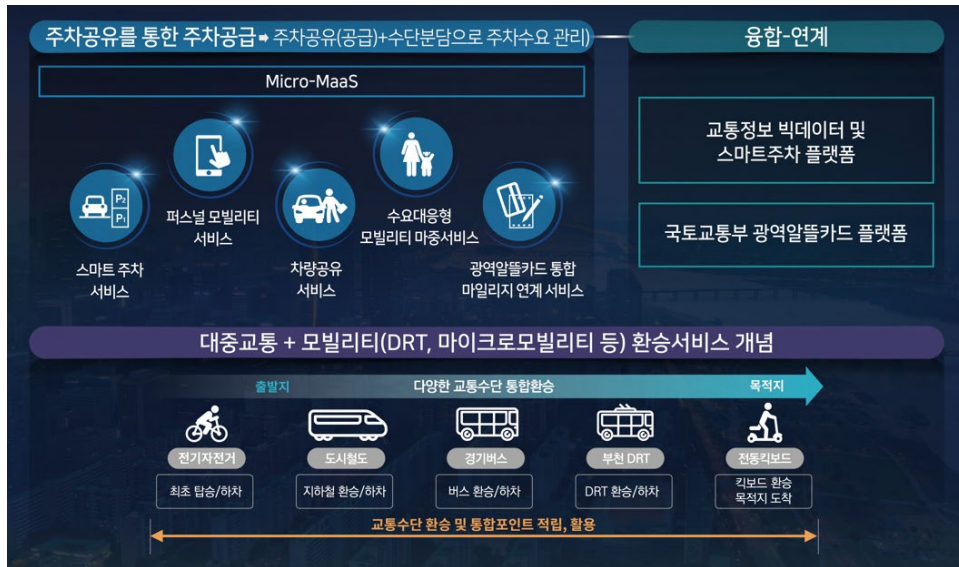


<그림 2> 공유서비스의 통합(MaaS)과 공유서비스 간 신뢰(블록체인)

## 02 진화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통합 플랫폼으로 도시문제 해결

원도심의 도시문제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부천시 is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선정을 계기로, 주차문제 해결을 더욱 고도화할 뿐 아니라 부천시 전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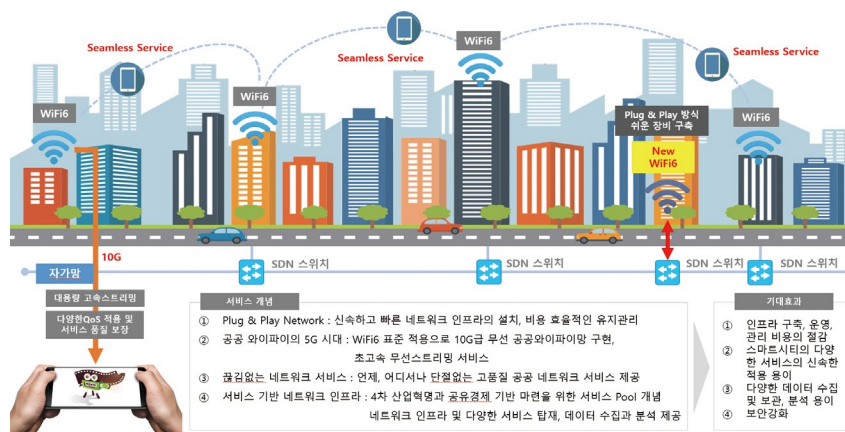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 및 마을기업과 부천시가 더욱 강화된 협력 거버넌스로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주차 및 모빌리티 대중교통 연계), 안전(무단횡단 보행자 보호, 실종자 및 감염자 추적), 환경(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차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수단분담을 통하여 주차수요 관리까지 확대)

<그림 3> 교통·주차 솔루션

또한 혁신기술(AI 영상, AI 클라우드 등) 기반의 공공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진화하는 클라우드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 통합 분석시대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엣지 AI 기술을 활용한 대용량 영상 데이터 현장 분석, 움직임에 네트워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망(SD-WAN 기술) 기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계속 진화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림 4> 언제 어디서나 단절 없는 고품질 네트워크 환경